

바그너의 불교세계, 빨리어로 그려지다

꽃 '바그너의 꿈'

6월 15일까지 공연

불멸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 · 1813~1883)의 탄생 200주년을 앞두고 그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페라 '바그너의 꿈(Wagner Dream)'이 영국에서 빨리어와 독일어로 공연된다.

웨일즈온라인(WalseOnline)은 5월 17일 현지시각 "영국의 웨일즈국립오페라(Welsh National Opera)단이 부처님을 주제로 한 바그너의 미완성 오페라 '승리자(The Victory-Die Sieger)'를 모티브로 조나단 하비(Jonathan Harvey · 1939~2012 · 영국 작곡가)에 의해 작곡된 '바그너의 꿈'을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웨일즈 밀레니엄 센터(Wales Millennium Centre)의 무대에 올린다"고 보도했다.

바그너는 말년에 이르러 스스로 불자로 자처하며 "불교야말로 편협한 모든 다른 도그마와 비교되는 세계관"(출처:Clarke 77)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 1811~1886)에게 보낸 편지에는 "유대·기독교 교리와 비교해서 이(불교) 교리는 얼마나 숭엄하며,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기독교는 알렉산더의 원정 이후 지중해 연안에 확산되었던 저 숭엄한 불교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을 정도다.(출처:Clarke 77)

불교에 대한 바그너의 열정은, 그가 부



바그너가 미완성한 부처님 생애에 기초한 오페라 '승리자' 중 한 장면



승리자(The Victory)의 포스터. 왼쪽은 바그너, 오른쪽은 붓다의 모습

웨일즈국립오페라, 밀레니엄센터서...곰브리치 교수 빨리어 번역

바그너 "불교 교리는 숭엄하며 만족스러워"

"빨리어 공연 인도·독일 문화 흐름 선명히 보여줄 것"

처님의 생애에 기초한 '승리자(The Victory - Die Sieger)'라고 하는 오페라를 구상하는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 오페라는 완성되지는 못했다. 조나단 하비의 '바그너의 꿈'에는 이러한 바그너의 삶과 펼쳐지 못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불교 오페라에 대한 그의 영감이 담겨 있다.

공연의 지휘봉을 잡은 데이비트 폰트니(David Pountney · 웨일즈국립오페라) 감독은 "오페라 '바그너의 꿈'은 서양 음악의 전통 음률에 불교적 이상과 내러티브 요소 등이 극대화 된 작품"이며 "이는 원작의 언어가 영어이지만, 이번 공연 언어로 빨리어와 독일어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빨리어는 아소카(Ashoka · BC273~BC232) 왕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기록했던 인도의 고대어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웨일즈온라인은 비평가들의 말을 인용, "빨리어와 독일어로 공연되는 '바그너의 꿈'은 영어로 공연되는 것보다 더 깊은 문화적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바그너가 미완성 오페라 '승리자(The Victory - Die Sieger)'를 통해 관객과 나누고자 했던 이상을 더욱 잘 보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페라 '바그너의 꿈'의 빨리어 가사는 빨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 회장을 역임한 리차드 곰브리치(Richard Gombrich · 옥스포드대) 교수가 맡았다.

"홍미진진한 도전이었다"며 소감을 전한 곰브리치 교수는 "음률에 맞춰 빨리어를 배열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확히 전하고자 하는 의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사를 옮기는 동안 빨리어와 독일어야말로 바그너가 미완성 오페라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인도와 독일의 문화·사상적 흐름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오페라 '바그너의 꿈'에서 부처님을 상징하는 인물 바이로차나(Vairochana)로 무대에 오른 리하르트 위골트(Richard Wiegold · bass)는 "'공(空) 사상(the concept of emptiness)'을 담고 있는 노래 가사를 어떤 감성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할지 하는 점이 연습 내내 화두였다"며 "감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무대에서 감정을 절제하는 언어, 빨리어로 노래하는 것이 이번 무대의 백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중욱 편집위원

티베트인 분신자살... 中 경찰 스트레스

중국정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대응 매뉴얼 배포

티베트인들의 잇단 분신자살로 티베트 지역에 주둔한 중국 무장경찰들이 극심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5월 22일(현지시각) 티베트 주둔 무장경찰의 25페이지 분량 내부 훈련문서를 인용하면서 "현지 무장경찰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텔레그래프는 "중국 당국이 이 문서를 통해 최근 분신자살 등 잔혹한 사건을 겪은 무장경찰의 우울증과 PTSD에 대응하는 매뉴얼과 권고사항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문서에서는 2011년 3월 16일 쓰촨성 아바현에서 발생한 티베트 승려 리그진 폰 추(21)의 분신자살 등을 언급한 뒤, 이 작전에 참여한 일부 경찰들이 악몽과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PTSD의 증상인 플래시백(당시 상황이 떠오르고 극심한 공포를 체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이에 대한 대응요령으로 "눈을 감고 당시의 이미지를 카메라와 같은 장면으로 생각한 뒤 zoom 아웃 하듯이 풍경을 멀리 보내며 '사라졌다'고 스스로 되뇌어라"고 제시했다. 이밖에 산책과 음악 듣기, 운동, 카드게임, 일기 쓰기 등도 치료방법에 포함됐다.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인권단체 '티베트 인권민주주의센터(TCHRD)'는 이 매뉴얼을 공개하면서 "티베트인이 중국 통치 하에 조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중국 당국의 주장이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티베트에서는 2009년 2월 이후 최소 109명의 티베트인이 분신을 시도했으며 이 중 최소 89명이 숨졌다.

텔레그래프는 또한 "과거 10년간 특별한 의료팀이 티베트에 파견돼 현지에서 수개월간 주둔 경찰들을 상담하거나 치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충칭시 제3군의대학은 7개팀을 티베트지역에 파견

해 심리적 조사와 함께 1000명 이상을 치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사 도심의 무분별한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캠페인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5월 20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전 세계의 티베트 학자 200여명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라사 구(舊) 도심의 상업화 개발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학자들은 서한에서 급속한 개발로 인해 구 도심인 바코르(중국어 바궈(八廓))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물 유산들이 파괴되고

일부 경찰 악몽·우울증 겪어

산책·음악듣기·운동이 치료법

특별의료팀 파견돼 심리치료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온라인 서한은 "이런 파괴는 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티베트 과거와 연결된 살아있는 끈과 줄'을 끊어 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앞서 티베트 망명정부는 성명에서 "조각사원(大昭寺) 등이 있는 불교 중심지 바코르 지역을 관광지로 변모시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공사중단을 촉구했다.

조각사원은 라사의 포탈라궁과 함께 티베트인의 양대 정신적 성소로 불리며, 두 곳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조각사원은 중국 통치에 반발하는 티베트인의 상징적인 저항 중심지이며, 바코르 지역에서 지난 2008년 티베트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유희 시위가 벌어져 10여명의 희생자가 났다.

이어나 기자

"대화와 소통으로 사회적 대립 풀어야"

중국과의 내홍 많은 홍콩 ... 명상 법회서 해법 찾아

아시아 투어 일환으로 홍콩을 방문한 틱낫한(Thich Nhat Hanh) 스님이 '홍콩 사회에서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지가 5월 2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매화마을(Plum Village) 홍콩 지원장 팜 캄(Phap Kham) 스님의 말을 인용, "틱 낫 한 스님은 한 번의 대립은 막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생겨난 또 다른 대립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홍콩 사회에 알려주었다"며, 틱 낫 한 스님의 홍콩 방문 의의를 요약했다. 이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는 대화와 소통만이 중국과 홍콩 그리고 시민 간에 불거져 있는 정치·사회적 갈등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현재 홍콩 사회는 2017년 실시될 '행정장관 직선제'를 놓고 중국(중앙정부)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새 지도부가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세력이 집권한다면 홍콩에도, 중국에도 좋지 않은 일"이라며 "애국적인 인사가 집권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홍콩 사회가 "반중 인사의 출마를 미리 차단하고 친중국 인사를 대폭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을 당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안 두 체제의 공존), 즉 본토의 사회주의 체제와 달리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약속했고, 지난 2007년 말에는 홍콩 야권의 대규모 시위와 여론의 압



틱 낫 한 스님의 명상 서예. 리나 안젤라 코퍼스(Rina Angela Corpus) 소장.

력에 밀려 10년 뒤인 2017년부터 홍콩 행정장관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할 것을 약속했다.

팜 캄 스님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불안에는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틱 낫 한 스님의 '화를 다스리며,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틱 낫 한 스님이 홍콩에서 개최한 명상 법회 현장.

로, 지금의 홍콩 사회가 새겨 들어야 할 선사의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팜 캄 스님은 "홍콩 사회 곳곳에서 중앙정부(중국)를 향한 항의는 '우리와 대화를 하자'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라고 말하고, "틱 낫 한 스님은 평화적인 문제 해결에 힘을 실었지만, 불의에 맞서 적극 대처하거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오중욱 편집위원



텔레그래프는 티베트인들의 분신자살 사건에 참여한 경찰들이 악몽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영남범음범패 제2기학인모집

- ▶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 49재, 모든의식)
- ▶ 작법무 : 천수바라, 황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 ▶ 교육과정 : 6개월
-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 교육대상 : 제한없음
- ▶ 개강일시 : 2013년 6월 17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까지)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불교회관)
- ▶ 문의처 010-5065-5690 011-887-4591

사) 한국미륵불교부설 불교대학범패원

고(古) 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정체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요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촉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침,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의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인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사여래도량
보금정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매매 잔금 대출
- 불사 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안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8-1번지 외

- 토지 1,220평
- 대웅전 45평
- 요사채 38평
- 매매가 7억 5천만원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팀장 황재영 010-4505-7180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